

완도-유럽 해양바이오·해조류 산업 협력 강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완도 산업 현장 방문·전학 사업적 협력모델 구축...“해조류 우수성 세계 홍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관계자들이 최근 완도의 해양바이오·해조류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적 협력과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방문은 완도군이 지난 2019년과 2024년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를 방문해 물꼬를 튼 해양바이오·해조류 산업 육성 협력에 대한 답방이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방문단을 이끈 필립 포탕 수석 연구원은 유럽 최대 기초 과학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원 소속이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장으로 해조류 생물학 및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연구소장을 역임

한 그는 한국 김과 다시마 등 식용 해조류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으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도 2회 연속 참여하는 등 완도군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방문단은 해양바이오 연구 시설과 해조류 양식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완도의 선진화된 양식 기술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추출·가공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양측은 기존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학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사업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했다.

필립 포탕 박사는 “완도군의 우수한

해조류와 해양바이오 인프라, 체계적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이 매우 인상 깊다”며 “프랑스의 원천 기술과 완도군의 풍부한 자원·인프라가 결합된다면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프랑스 로스코프 연구소와의 협력은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완도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적·과학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과 로스코프 연구소는 지난 2020년 다자 공동 펀딩형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네트워크’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공동 연구 및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rk1831@gwangnam.co.kr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관계자들이 최근 완도의 해양바이오·해조류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적 협력과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완도군청

해남,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 추진한다

전기요금·해남사랑상품권 카드·배달 수수료 지원

해남군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부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억66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요금을 충족할 경우 전기요금, 해남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공공배달앱 먹게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장에 부과된 전기요금 지원 10만원,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0만원, 공공배달앱 먹게비 가맹점에는 배달 1건당 1000원의 배달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2025년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사업금액증명원), 전기요금 고지서이다.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청 6층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061-530-5353)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부담이 커져 시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영비 지원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2239@gwangnam.co.kr

목포, 내달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본격화

성평등가족부 지원사업 선정...국비 3억 확보

목포시가 성평등가족부 추진하는 ‘모두의 생리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3억원을 확보,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센터, 청소년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생리대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되는 생리대는 성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생리대가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위생용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지원하는 사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전남도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목포시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공공생리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 저녁노을미술관, 김두석·박영도 2인전

8월 30일까지 작품 ‘흙과 먹’ 30여점 전시

신안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저녁노을미술관에서 기획전 ‘김두석·박영도 2인전, 심상(心象)-흙과 먹’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두 작가의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흙과 먹이라는 전통 재료가 현대 미

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전시는 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두석 작가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철학을 담은 ‘도조화’를 통해 흙의 생



명력과 차분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박영도 작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 사리조를 통해 자연의 흐름과 먹의 다양한 표현을 작품에 담아냈다.

두 작가는 전통적 표현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재료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흙과 불, 먹

과 붓이라는 본연의 재료를 활용하면서 색과 질감, 움직임 등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또 끊임없는 재료 탐구를 바탕으로 도예와 서예,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객들이 두 작가가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울림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성의 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아카데미홀 임대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